

# 강원지역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에 따른 문화지역 구분\*

정근비\*\* · 임은진\*\*\* · 장동호\*\*\*\*

## Classification of Cultural Region according to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Weeding Songs in Gangwon Region\*

Geun-Bi Jeong\*\* · Eun-Jin Lim\*\*\* · Dong-Ho Jang\*\*\*\*

**요약** : 본 연구는 강원지역에서 채록된 논매기소리 자료를 바탕으로 소리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여 문화지역을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강원지역의 대표적인 논매기소리 8개 유형을 중심으로 소리문화 지역을 총 6개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서북부지역은 주로 짧은 덩어리 류가 분포하고 인접한 경기도 포천과 연결되며, 추가령구조곡과 한탄강 유역을 따라 소리 전파가 이루어졌다. 영서중부지역은 상사 류, 방아소리 류 등의 논매기소리가 주로 나타나며, 대부분 서남부의 평야지역에서 분포한다. 반면 영서남부지역은 단허리 류가 소리문화 중심지인 원주, 횡성과 인접한 시·군에 분포하며, 아라리 류는 태백산지 일대의 정선, 평창 등지에서 나타난다. 영동북부지역에서는 주로 미나리 류가 소하천 주변에 발달한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영동중부지역은 오독떼기 류와 미나리 류가 주로 분포하며, 그중 오독떼기 류는 강릉이 문화 중심지에 해당한다. 영동남부지역은 미나리 류가 일부 나타나지만, 경상북도 북부 울진이 문화중심지인 입말 류가 나타나서 소리 전파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논매기소리, 강원도, 소리문화, 문화지역, 공간 분포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songs for each type based on the data of the weeding songs recorded in the Gangwon region, so as to classify cultural areas. As a result, the areas of sound culture were divided into a total of six cultural areas, focusing on the eight typical types of weeding songs in the Gangwon region. To be specific, Short Deongeori Type is distributed in the northern Yeongseo region and connected to the adjacent Pocheon in the Gyeonggi province, and sound diffusion was made along the Chugaryeong Tectonic Valley and the Hantan River basin. In the central Yeongseo region, weeding songs such as Sangsa Type and Bangasori Type mainly appear and are mostly distributed in the plains of the southwestern area. On the other hand, in the southern Yeongseo region, Danheori Type is distributed in the neighboring cities and counties with Wonju and Hoengseong as centers of sound culture, while Arari Type appears in Jeongseon and Pyeongchang in the Taebaek Mountains region. In the northern Yeongdong region, Minari Type is mainly distributed in the plains around small streams. In the central Yeongdong region, Odokttegi Type and Minari Type are mainly distributed, and Gangneung is the center of sound culture for Odokttegi Type. In the southern Yeongdong region, Minari Type appears to some extent. However, it is adjudged that in this area, Ipmal Type with Uljin located in Gyeongsangbuk-do as the center of sound culture appears and sound diffusion is made.

**Key Words** : Weeding song, Gangwon region, Sound culture, Cultural area, Spatial distribution

\*이 연구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572).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Master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jkb8996@smail.kongju.ac.kr)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ejlim21@kongju.ac.kr)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gisrs@kongju.ac.kr)

## I. 서론

논매기소리는 민중의 생활 및 정서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노동요로 경작지에서 잡초를 뽑으며 부르는 민요이다. 이는 논농사가 가능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며, 농촌 지역민들의 가치관과 정서 등이 담겨있다(이소라, 2002). 노동요는 지리적 조건과 산업, 역사적 과정, 인문적 정서와 같은 문화적 특징에 따라 지역마다 다른 소리 특성을 지닌다. 또한, 마을 단위로 최소 2~3종 이상의 소리가 하나의 조합을 이루며, 가까운 지역이라도 구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로 보아 논매기소리는 소리 유형이 풍부하고 지역적 차이를 다양하게 내포하고 있어,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구분하기에 탁월하다(강등학, 2011).

과거 전통 촌락사회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을 단위의 논농사를 실시하였다. 농촌사회에서 논농사 등을 포함한 공동체 행사는 해당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사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논매기소리는 점차 사라져가는 문화요소이며, 그 자료가 매우 희귀하고 보존 가치가 높다. 따라서 문화적·사회적·지리적 가치가 높은 논매기소리를 대상으로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여 소리 유형별 문화지역을 구분하는 작업은 민요학·지리학·고고학계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다(김장수·장동호, 2020).

한편, 논매기소리의 문화지역 구분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민요학계에서 진행되었다. 그중, 이소라(1987)는 농사와 직접적·간접적으로 관련된 농요의 6가지 특성을 구분하고, 각각 특성에 따른 소리 유형의 사례를 설명하였다. 전지영(2003)은 전라남도 논매기소리와 모심기소리를 비교하며 논매기소리가 모심기소리보다 오래된 농요임을 강조하였으며, 두 음악 어법에 따른 민요의 지역적 분포와 음악적 특징을 서술하였다. 또한, 강등학(2011)은 강원도 논매는 소리의 분포 특징을 분석하고, 특정지역에서 우세한 소리 특색에 관한 연구를 통해 소리의 전파에 인근 지역 및 지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유명희(2014)는 강원도 홍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을 분석하여 민요의 전파와 논매기소리가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전파됨을 분석하였다. 이 밖에 박선애(2018; 2021)는 강원도 지역의 민요 사설을 통해 지역적 차이를 보이

는 문화적 특징을 고찰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소리를 구분하였다.

최근 들어 지리학계에서도 논매기소리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지역을 구분하거나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주로 논매기소리 문화지역 분류에 지형 요소 및 자연 환경을 추가하여 분류를 심화 분석하였다. 그중, 장동호·이소라(2015)는 충남지역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을 기반으로 충남을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지역의 사회·문화·역사가 지역성과 지역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위눈솔·장동호(2016)는 전북 논매기소리를 대상으로 시·군별 공간 분포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역 문화권을 분류하였다. 또한, 유혜연 등(2020)은 논매기소리 자료를 기반으로 경남 지역의 각 소리 유형별 지리적 공간 분포를 분석하고 문화권을 분류하였으며, 선구조, 하계망 등 지형 요인을 중심으로 소리 전파 패턴을 분석하였다. 김장수·장동호(2021)는 지역적인 분포 패턴이 확연히 드러나는 네 가지 소리를 중심으로 논매기소리의 분포 특성과 전남지방의 문화지역을 분류하였다. 이밖에 장동호·임은진(2022)은 삼한시대 이후의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지역 경계를 설정하고 논매기소리의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구분된 문화지역과 논매기소리의 분포가 대체로 일치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종합적으로, 논매기소리는 문화 요소로서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잘 드러나 있으며, 유사한 유형의 논매기소리들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들은 동일한 문화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지역의 구분을 통해 논매기소리의 분포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문화 요소 중 하나인 논매기소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를 중심으로 강원지역에서 채록된 논매기소리 자료를 토대로 소리 유형별 공간적인 분포 특성을 분석하여 문화지역을 구분하였다, 분석된 연구 결과는 문화 요소로서 논매기소리가 가진 지역성을 규명할 수 있으며, 과거 고대 부족국가시대부터 이어져 온 논매기소리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소리문화 지역구분 및 음악지리학적 측면에서 새로운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II.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본 연구지역인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중앙 동쪽 지역에 위치하여, 서쪽으로 경기도, 남쪽으로 경상북도, 충청북도, 동쪽으로는 동해와 맞닿아 있으며, 북쪽으로는 북한과 맞닿아 있다. 강원도의 동서 길이는 약 150km에 달하며, 남북은 약 243km, 동쪽은 약 314km에 걸쳐 해안선을 이루면서 이어져 있다(강원도청). 경기도와는 고대산, 화악산, 금불산 등과 같은 산지를 경계로, 충청북도와는 백운산, 구학산, 감악산, 마대산 등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경상북도와는 소백산맥을 경계를 이루고 있다.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7° 05′~129° 22′, 북위 37° 02′~38° 37′이며, 강원도의 면적은 16,875.26km<sup>2</sup>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16.8%를 차지한다(그림 1).

연구지역의 지질구조를 살펴보면, 북에서 남으로 경기육괴, 옥천습곡대, 소백산육괴의 지체구조구(地體構造區)를 이룬다. 경기육괴 분포지역은 대체로 강릉에서 원주를 연결하는 선의 북쪽 대부분을 차지하며, 변성암과 화강암이 주로 나타난다. 변성암은 경기편마암복합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에 춘천계 등의 선감브리아기의 지층이 소규모로 분포한다. 경기편마암복합체는 고성-춘천을 잇는 NE-SW 방향의 대상(帶狀)을 이루면서

넓게 분포하고, 그 외에 오대산 및 치악산 일대에도 비교적 넓게 분포한다. 경기육괴 지역에서 화강암은 주로 중생대 쥐라기에 관입한 대보화강암으로 NE-SW 방향의 대상으로 길게 분포한다. 그중 속초-홍천과 강릉-원주에서는 각각 NE-SW 방향 및 NEE-SWW 방향의 화강암 저반을 형성하였다(국토지리정보원, 2006).

산지가 많은 강원도 특히 영서지방의 도시들은 분지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다. 분지 지형은 주위가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부는 완사면과 낮은 기복의 구릉지, 침식평지와 충적지로 이루어져 있다. 낮은 기복의 구릉지와 침식평지는 배수가 양호하고 취락이 발달하기 좋으며 충적지는 일찍부터 농경 생활에 유리한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분지로는 춘천분지, 원주분지, 홍천분지, 양구 해안분지, 화천 오음분지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지역 논매기소리를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소리 유형별 문화지역을 구분하였다. 먼저, 강원지역의 문화지역 구분 및 특성 분석을 위해 기존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건설부 국립지리원, 1984; 김창환·배선학, 2006; 국토지리정보원, 2015). 이후 강원지역의 문화·생활권과 지리적 연계성을 기반으로 지형 요소와 행정구역 분석을 통해 소리문화권을 총 6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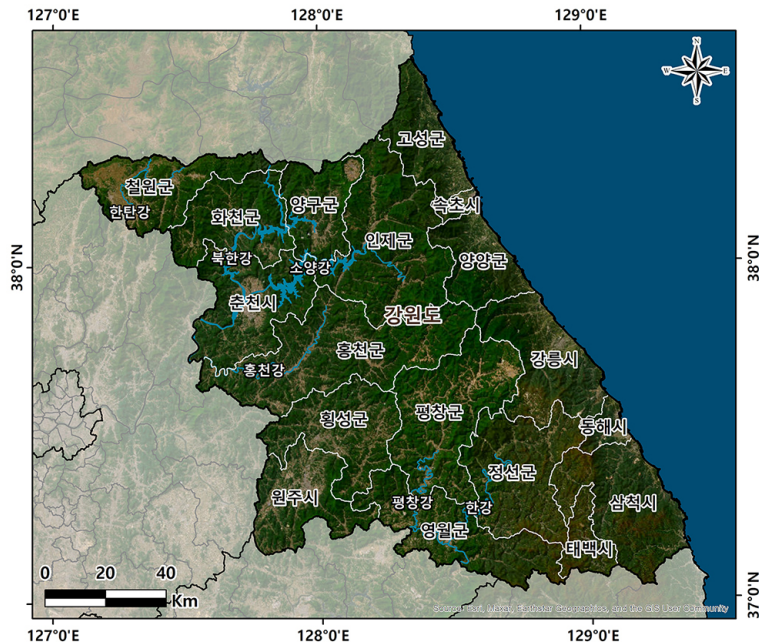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 위치도

다음으로 민족음악연구소에 의해 1980년대를 중심으로 강원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채록된 논매기소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강원지역에서는 총 334곡의 논매기소리가 채록되었다. 이 중에서 채록수에 따라 분류된 상위 8개 논매기소리의 유형 자료를 바탕으로 강원지역에 주로 나타난 논매기소리의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334곡 논매기소리의 녹음지역 주소를 경위도 형식의 GIS 공간자료로 변환하여 각 유형별 논매기소리의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논매기소리 전파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산맥 및 수계 등의 지형요소를 반영한 수치표고모형(DEM, Digital Elevation Model)과 하계망도 등을 제작 및 활용하여 강원지역의 전반적인 자연지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DEM은 90m 공간 해상도를 가진 국토지리정보원의 한반도 수치표고모형 자료이다.

최종적으로 기 구축된 강원지역의 논매기소리 유형별 자료와 지형요소를 활용하여 소리 수가 30곡 이상이거나 각 시·군을 대표하면서 문화지역별 분포 특성이 뚜렷한 상위 8개 유형에 대한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논매기소리 등 문화 요소에 대한 문화지역 구분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소리문화지역을 구분하였다.

### III. 강원도 논매기소리의 문화지역 구분 및 소리 유형별 공간 분포

#### 1. 강원지역의 문화지역 구분

강원지역의 문화지역을 구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질구조와 자연지리적 요소 및 행정구역 경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행정구역은 주로 하천과 산의 능선을 경계로 결정되며, 태백산맥과 남한강 및 주요 지류하천 등은 문화 교류 및 전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화지역 구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행정구역 경계를 기반으로 한 문화지역 구분은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문화 특성의 지리적 영향 범위를 분석하는 데 탁월하다(이기태, 2010).

강원도는 태백산지가 강원도의 중앙부를 NNW-SSE 방향으로 뻗어 넓게 펼쳐져 있으며, 태백산지 동부에서

는 태백산지의 주 방향으로 백두대간이 이어져 있다. 백두대간은 금강산(1,638m)에서 설악산(1,708m), 동대산(1,434m), 함백산(1,573m), 태백산(1,567m)이 이어져 나타난다. 이러한 험준한 산지들은 문화 교류와 소리 전파에 있어 방해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지역의 수계를 살펴보면, 한탄강은 임진강으로 합류하고, 금강산에서 발원한 북한강은 남류하다가 춘천에 이르러 소양강과 합류하여 유역에 양구·화천·인제·춘천 등의 분지를 형성한다. 강원도 남부지방에는 한강의 본류인 남한강이 태백 김통소에서 발원해 골치천이 되어 북류하다가 송천과 오대천을 합류한다. 이후 주천강·평창강 등에 합류하여 대관령·진부 부근의 평탄면과 정선·평창·영월 등의 분지를 형성한다. 횡성·원주 일대를 흐르는 섬강은 원주시 부론면에서 남한강으로 흘러든다. 이러한 강원도의 지형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강원지역은 인근지역으로부터 선구조에 따른 수계망을 통해 활발한 논매기소리를 포함한 문화 교류와 소리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지역의 지역구분에 기존에 사용된 문화·경제 및 생활권 구분 특성을 살펴보면, 건설부 국립지리원(1984)에서는 문화환경을 기반으로 총 5개 권역인 영서북부(철원), 영서중부(화천, 춘천, 홍천, 인제, 양구), 영서남부(원주, 횡성, 영월, 정선, 평창), 영동중부(고성, 속초, 양양), 영동남부(강릉, 동해, 삼척, 태백) 등으로 구분하였다(그림 2(a)).

국토지리정보원(2015)에서는 강원지역의 자연적 특징과 인문적 특징에 근거하여 지역에서 통일된 특성이 나타나도록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경계를 설정하였다. 강원 지역을 영동중부, 영서지방, 폐광지역, 접경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영서접경지역에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군이 속하며, 영서지역에는 춘천, 홍천, 횡성, 평창, 원주가 속한다. 영서폐광지역에는 영월, 정선이 있으며, 영동접경지역에는 고성, 영동지역에는 속초, 양양, 강릉, 동해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영동폐광지역에는 삼척, 태백이 있다(그림 2(b)).

김창환·배선학(2006)은 강원지역 분수계를 중심으로 한 하천 유역권으로 구분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북한강 권역, 남한강 권역, 영동권역 총 3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북한강 권역에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춘천, 홍천이 속하며, 남한강 권역에는 횡성, 평창, 원주, 영월, 정선, 태백이 속한다. 또한, 영동권역에는 고성, 속초, 양



양, 강릉, 동해, 삼척으로 구분된다(그림 2(c)).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강원지역의 논매기소리 공간 분포 특성 분석을 통해 건설부 국립지리원(1984)의 문화지역 구분을 기반으로 총 6개 문화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강원지역의 대관령을 중심으로 영서, 영동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다시 각 지역의 문화, 생활, 교통권을 고려하여 영서북부, 영서중부, 영서남부, 영동북부, 영동중부, 영동남부 등 총 6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였다(그림 2(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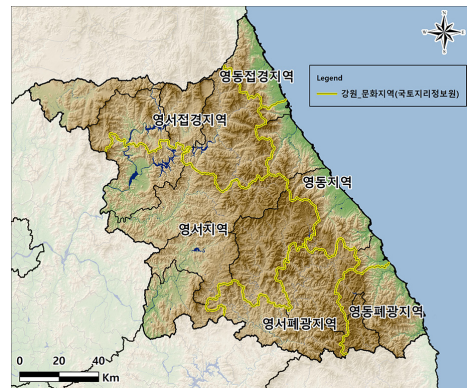
영서북부지역은 철원을 단일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지역은 한탄강의 유로를 따라 경기도 연천군과 포천시에 이어져 있어 논매기소리 문화지역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경기도 서북부 문화지역에 가까운 곳이다(이소라 등, 2022b). 영서중부지역은 화천, 양구, 인제, 춘천, 홍천이 포함된 지역으로 논매기소리 공간 분포 특성에

서 본다면 외부 타 시·도에서 전파된 소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영서남부지역은 횡성, 평창, 정선, 원주, 영월, 태백이 속한 지역으로 논매기소리 문화지역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로 외부 전파보다는 도내에서 자생한 소리가 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 영동북부는 고성, 속초와 양양 북부 일부가 포함된 지역으로 논매기소리의 외부 전파가 아닌 자생 소리가 분포하는 지역이며, 영동중부 역시 자생 소리 분포지역으로 양양 남부와 강릉, 동해가 속한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영동남부지역은 삼척이 단일지역으로 구분되는 지역인데, 인접한 경상북도 울진군의 외부 소리가 유입된 지역이다(이소라 등, 2021). 이와 같이 설정된 강원지역의 문화지역을 바탕으로 각 문화지역에 따른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적 분포 양상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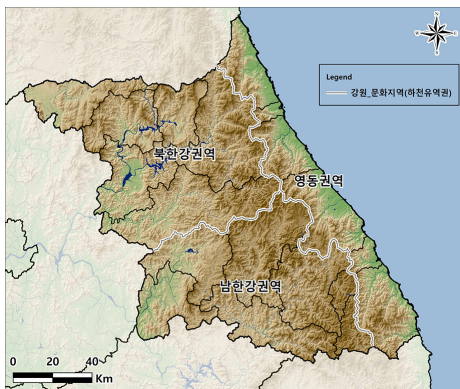
(a) 강원 지역 문화환경 구분도

\* 출처 :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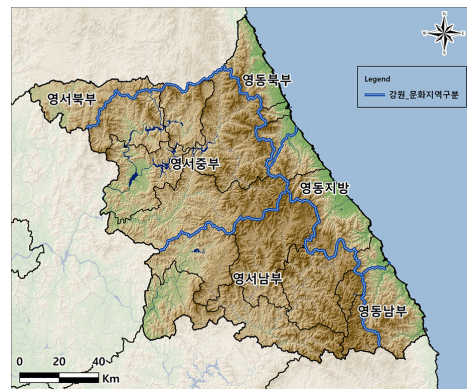
(b) 강원도 지역구분도

\*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2013



(c) 강원지역의 하천유역권 구분도

\* 출처 : 김창환·배선학, 2006



(d) 강원지역의 문화지역 구분도

그림 2. 강원지역 지역구분도

## 2. 강원지역 논매기소리의 대표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

본 연구에서는 강원지역에서 채록된 논매기소리 중 소리의 빈도수가 높은 상위 5개 유형의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중 소리의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방아소리 류(96개), 상사 류(48개), 오독떼기 류(41개), 단허리 류(36개), 미나리 류(34개)이다(표 1, 그림 3).

먼저, 가장 많은 소리가 채록된 방아소리 류는 강원서부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외부 경기도 지역에서 유입된 소리이다(이소라 등, 2022b). 강원지역에서는 두 갈래의 전파 양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추가령 구조곡 및 단층선을 따라 동일한 방향으로 발달한 육로

를 통해 철원과 화천으로 한 갈래의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하천의 유로를 통해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로 북한강 및 지류인 홍천강을 따라 춘천 및 홍천으로 전파된 소리와 남한강 및 그 지류인 섬강을 따라 전파된 소리로 구분된다. 육로와 북한강 및 남한강을 통해 전파된 논매기소리 분포 지역들은 대체로 짧은방아 류가 많이 불리었지만, 그 지류인 홍천강과 섬강, 평창강 유역에서는 중방아 류와 느린방아 류 등 보다 늘어진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그림 4(a)).

다음으로 상사 류는 방아소리 류와 마찬가지로 강원서부지역인 영서지방의 평야지역에서 널리 분포한다. 대표적인 분포지역은 철원평야, 춘천분지, 문막평야 등

표 1. 강원지역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소리 개수(상위 5개)

유형	소리 개수(%)	내·외부 전파 유형
방아소리 류	96(28.7)	외부 유입
상사 류	48(14.4)	외부 유입
오독떼기 류	41(12.3)	내부 자생
단허리 류	36(10.8)	외부 유출
미나리 류	34(10.2)	외부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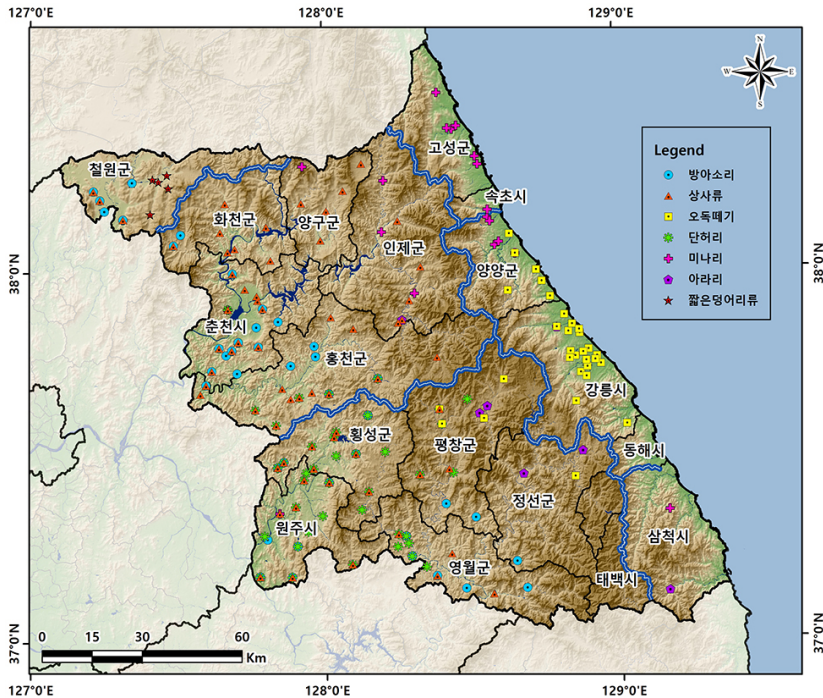


그림 3. 강원지역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 분포

이며, 주로 외부 경기도 및 충청북도 지역에서 유입된 소리이다. 따라서 경기도와 충청북도와 연결되어 있는 북한강 및 남한강과 그 지류인 섬강 등의 수계를 통해 소리문화가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평군에서 홍천군으로 연결되는 국도 44호선, 횡성군으로의 6번국도 및 옛 고갯길 등의 육로를 통해 소리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b)).

오독떼기 류는 경상도 모정자소리 류를 근간으로 하지만, 강릉에서 재창출하여 주변지역에 전파된 내부 자생 논매기소리이다(이소라 등, 2021). 즉, 강릉시를 중심으로 해안평야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강릉시 구정면 등 강릉 소리꾼들에 의해 재창출된 오독떼기 류가 이후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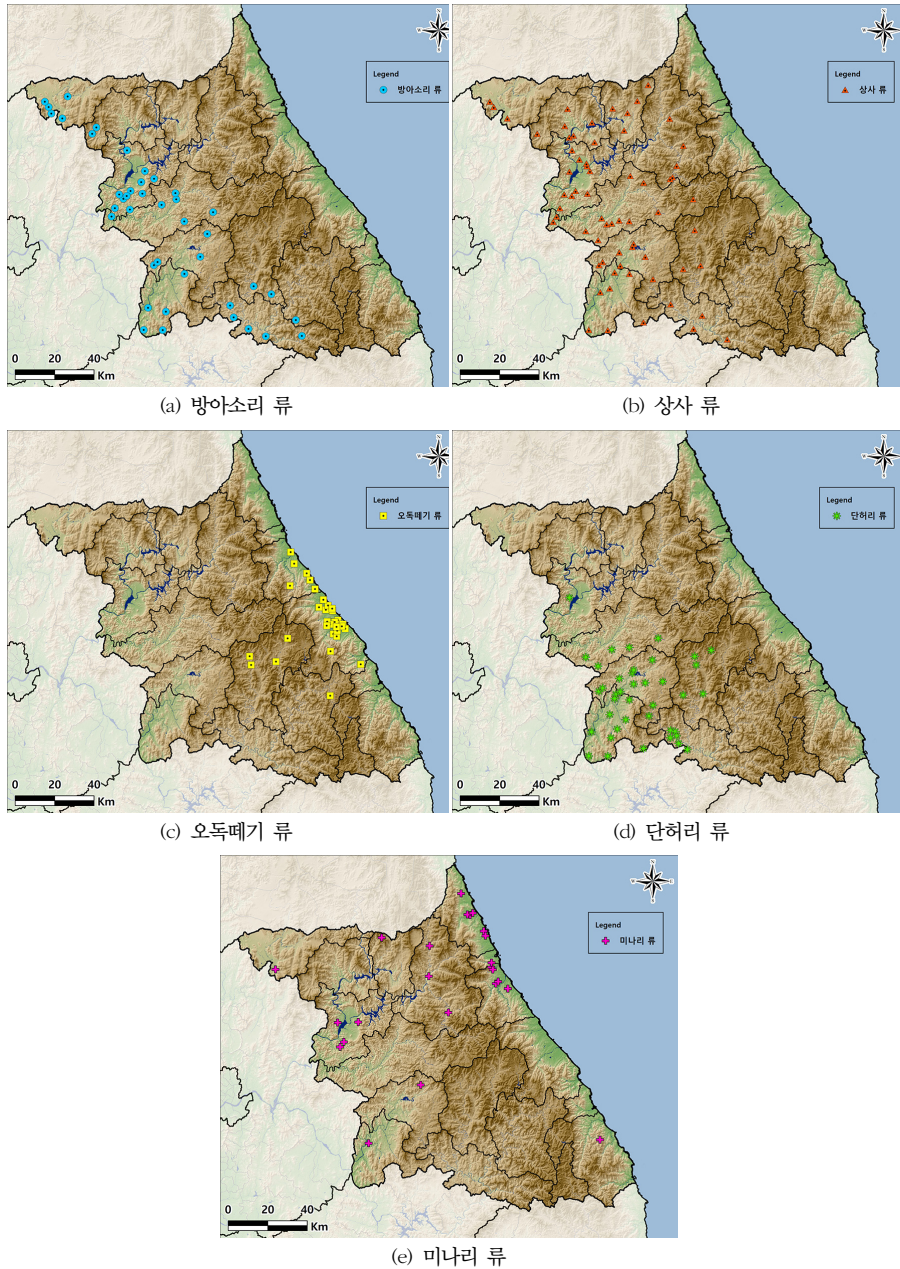


그림 4. 강원지역의 논매기소리 유형별 분포도



서지방과 영동중부의 관문인 대관령과 같은 고개를 통하여 일부 소리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영동중부와 경기지방을 이어주던 고갯길이 대관령임을 상기하면 이 경로를 통한 인적 교류를 통해 전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안평야 지역을 따라 양양군으로 전파되지만, 양양 남대천 북쪽 지역으로는 더 이상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속초 지방에서 미나리 류가 오독떼기 류보다 먼저 불러 졌기 때문에 전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이소라 등, 2022a). 반면 강릉시 남쪽 해안지역으로는 해안평야의 발달이 미흡하고, 높은 산지가 가로막혀 더 이상의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c)).

단허리 류는 남한강의 지류인 섬강을 따라 넓게 형성된 충적평야지대를 따라 분포하는데, 대표적인 문화 중심지로는 원주시와 횡성군 지역이다. 이들 문화 중심지에 가까운 홍천군과 평창군, 영월군 등으로 주요 지류 하천과 낮은 고개를 통해 소리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단허리 류는 강원도와 인접한 충청도와 경기도 일부에서도 불리고 있는데, 이는 단허리 류의 문화 중심지인 원주시와 횡성군을 지나는 섬강의 유로를 통해 남한강 유역으로 전파된 후 남한강의 상류인 충북지역으로 수로를 통해 한 갈래가 전파된 것으로 여겨진다(이소라 등, 2022a)(그림 4(d)).

마지막으로, 미나리 류는 강원 영동북부의 고성, 속초, 북부 양양과 일부 강원 영서지방의 경기도 인접 지역에서 나타난다. 미나리 류는 강원도를 비롯하여 경기도 동부지역에서 밭농사나 논농사 때 부르는 노래로, 특히 밭농사 중 화전을 할 때 잘 불리던 노동요이다. 강원 영동 북부지역에서 강원 서부지역으로 이어지는 미시령과 한계령이 문화 전파의 중요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전민을 중심으로 불렸던 미나리 류가 태백산맥을 통해 북쪽까지 전파된 후 강원 중부지방의 주요 교통로를 통해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본래 화전을 할 때 부르던 노래였기 때문에 강릉시나 양양군 남부의 평야지대에서는 전파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산지에서 들로 전파된 미나리 류와 해안을 따라 전파된 오독떼기 류가 양양군 북부지역에서 혼재되어 보이지만, 양양 남대천을 기준으로 북쪽은 미나리 류를 부르고, 남쪽은 오독떼기 류를 주로 부르는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4(e)).

### 3. 강원지역 논매기소리의 문화지역별 공간 분포 특성

본 연구에서는 강원지역 문화지역 구분에 따른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용된 논매기소리는 빈도수가 높은 상위 5개 유형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논매기소리 유형은 방아소리 류, 상사 류, 오독떼기 류, 단허리 류, 미나리 류 등이다. 이들 논매기소리 유형은 문화지역 구분에 사용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소리문화 지역 특성이 모식적으로 나타나는 3개 유형(아라리 류, 짧은덩어리 류, 입말 류)을 포함하였다(그림 3).

강원지역의 문화지역별로 나타난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영서북부지역에서는 짧은덩어리 류를 문화 중심으로 방아소리 류, 상사 류가 해당 문화지역에 일부 분포하였다. 영서중부지역은 상사 류와 방아소리 류를 문화 중심으로 미나리 류, 단허리 류가 일부 분포하였다. 영서남부지역은 단허리 류가 중심이며, 상사 류, 방아소리 류가 다수 분포한다. 또한 아라리 류와 오독떼기 류가 일부 분포하였다. 영동북부지역은 미나리 류가 중심이며, 다른 논매기소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동중부지역은 오독떼기 류가 중심이며, 미나리 류가 영동북부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일부 분포하였다. 마지막으로 영동 남부지역은 논매기소리 빈도가 낮아 명확한 소리문화 지역으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경북 울진의 대표적인 논매기소리인 입말류가 일부 나타나서 외부 소리가 유입된 문화지역으로 구분하였다.

#### 1) 영서북부지역

영서북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논매기소리 유형은 짧은덩어리 류이며, 그 외에도 상사 류, 방아소리 류 등이 분포하였다(그림 5). 영서북부지역은 논매기소리 분포가 전체 지역에 고루 분포하지 않고, 주로 한탄강 주변의 용암대지와 한탄강으로 유입되는 김화 남대천 유역의 평야지역을 따라 분포하였다. 즉, 영서북부지역은 서울에서 원산에 이르는 추가령구조곡이 지나가는 곳으로, 철원-평강 용암대지를 중심으로 남동부에 높은 산지와 북서부에 낮은 산지가 위치하며, 한반도 지체 구조상 경기육괴에 속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하천인 한탄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며 그 유역에 넓은 철원평야를 형성하였고, 논매기소리 역시 한탄강과 그 지

류 하천을 따라 나타났다.

철원군의 대표적인 논매기소리인 짧은덩어리 류는 경기도 포천이 소리문화 중심지역으로 추가령구조곡을 통한 육로나 한탄강의 수로를 통해 인접한 연천과 철원지역으로 소리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이소라 등, 2022b). 따라서 강원지역의 대표적인 소리문화는 아니며, 외부에서 유입된 소리로 경기 북부지역과 연결된 문화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철원 지역의 방아소리 류는 강원도 타 지역의 방아소리 류와는 달리 끝을 올리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경기도 북부의 논깎방아타령 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영서북부의 방아소리 류는 짧은덩어리 류와 마찬가지로 연천과 포천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와 한탄강의 유로를 따라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여 보면, 영서북부지역은 강원도에 속하고 있지만 추가령구조곡이 통과하고 한탄강의 유로를 따라 경기도 북부 지역과 강하게 연결되어 다른 강원지역에 비해 경기지방으로 접근이 용이하여 경기북부지역과 유사한 소리문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철원은 강원지역 내에서 짧은덩어리 류가 유일하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출발한 소리가 동쪽과 북동쪽의 높은 산악지역으로 인해 더 이상 다른 강원지역으로 전파되지 못하고 소리가 머무른 지역이다. 따라서 강원지역에서 유일하게 철원이 짧은덩어리 류의 문화 중심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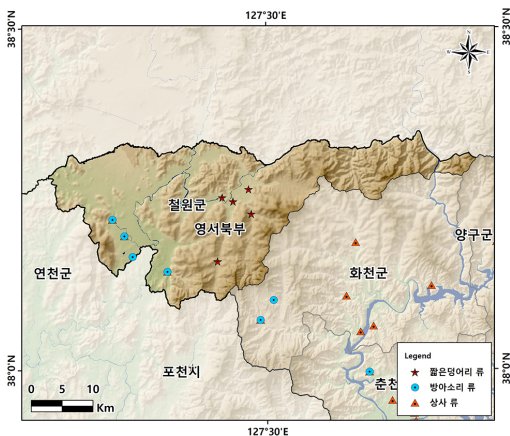


그림 5. 영서북부지역의 논매기소리 유형별 공간 분포

## 2) 영서중부지역

영서중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논매기소리 유형은 상사 류, 방아소리 류이며, 그 외에도 단허리 류, 미나리 류 등이 나타났다(그림 6). 방아소리 류는 대부분 서남부의 평야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상사 류는 서남부 평야 지역과 더불어 산지 곡저평야와 북한강과 그 지류인 하천들의 범람원 인근에 분포하였다. 이 밖에 단허리 류는 문화 중심지인 원주, 황성의 인접 지역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미나리 류는 동쪽 태백산지의 산간 곡저평야 지역에서 일부 분포하였다.

먼저, 방아소리 류는 영서중부의 서남부지역에 분포하는 대표적인 소리로, 북한강 및 지류인 홍천강을 따라 춘천 및 홍천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강 유역의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북한강의 다른 지류인 소양강 유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기도 지역에서 북한강을 따라 전파되었으나, 춘천 인근 지역에서 더 이상 타 지역으로는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상사 류는 영서중부지방의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는 논매기소리로, 강원 영서지역을 대표하는 소리이다. 즉, 상사류는 전국에 걸쳐 분포하는 논매기소리로 강원지역 역시 외부에서 유입된 소리이다(강등하, 2011). 따라서 소리문화 전파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기도나 충청도 쪽에서 육로나 하천의 유로를 따라 전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분포지역은 춘천과 홍천이며, 특히 북한강 수계에 해당하는 춘천 상류 지역인 양구, 인제지역까지도 전파되었다. 반면에 영동지방은 태백산지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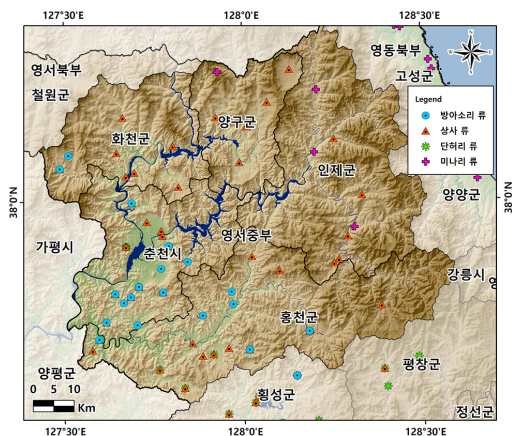


그림 6. 영서중부지역의 논매기소리 유형별 공간 분포

형 장벽 영향으로 더 이상 전파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나리 류는 주로 화전민들이 부르던 노래로 주변 산촌에 거주하던 화전민들로부터 논농사 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주로 산간 곡저평야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밖에 홍천에서 주로 나타나는 단허리 류는 원주와 횡성에서 직접적인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금계천 및 창봉천을 따라 발달한 충적평야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중심지와 인접 지역이 아닌, 단허리 류 전파 지역인 춘천의 경우는 이주 등의 사회적 요인에 의해 인한 이주로 인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여 보면, 영서중부지역은 다양한 논매기소리가 분포하지만, 그중에서도 상사 류와 방아소리 류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논매기소리이다. 상사 류와 방아소리 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춘천, 홍천과 인접한 경기 가평, 양평 등지에서 북한강의 주요 수로를 따라 소리의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춘천을 중심으로 북한강과 그 지류 하천을 따라 소리 전파가 진행되었고, 태백산지의 소규모 곡저평야나 고개 등을 통해 멀리 양구, 인제까지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 3) 영서남부지역

영서남부에서 주로 나타나는 소리는 단허리 류, 방아소리 류이며, 그 외에도 상사 류와 아라리 류가 나타난다(그림 7). 영서남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단허리 류는 횡성과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분포지역이 집중되어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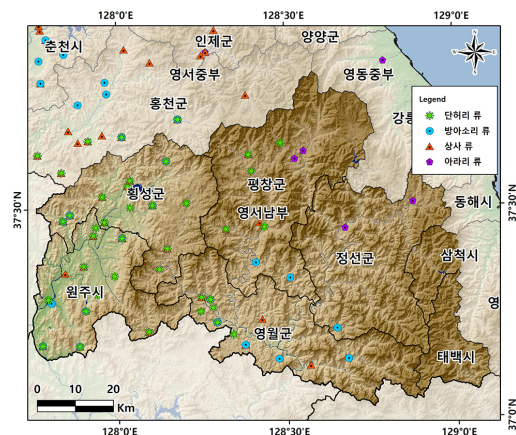


그림 7. 영서남부지역의 논매기소리 유형별 공간 분포

지역이 소리문화의 중심지이다. 즉 이들 지역은 남한강의 지류인 섬강을 따라 넓게 형성된 충적평야 지대로 일찍부터 논농사가 시작되어 외부 소리 유입이 아닌 자생적인 소리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인접한 홍천, 평창, 영월 등지로 주요 지류 하천과 낮은 고개를 통해 소리 전파가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으로 강원도와 인접한 충청북도의 제천, 충주와 경기도의 여주, 양평 등으로 소리 전파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상사 류와 방아소리 류는 영서중부지방과 마찬가지로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 특성이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방아소리 류는 남한강의 지류를 따라 영월, 평창, 정선 등의 태백산지 지역까지 전파되었으나, 상사 류는 원주, 횡성 등의 인접 지역에서만 전파가 이루어졌다. 이밖에 태백산지 일대인 정선과 평창에는 아라리 류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아라리 류는 정선 아라리로 불리는 소리로 과거 화전 경작에서부터 출발한 소리이다.

종합하여 보면, 영서남부지역의 논매기소리는 서북부에 발달한 비교적 넓은 평야와 낮은 구릉지 지역이 대표적인 소리 중심지이며, 그중에서도 단허리 류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논매기소리이다. 단허리 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원주, 횡성이 문화 중심지로 인접한 충북 제천과 충주, 경기 여주, 양평 등지로 하천 및 주요 고개를 통해 소리의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횡성을 중심으로 섬강과 그 지류 하천을 따라 소리가 전파되고, 높은 산지들 사이의 곡저평야나 고개 등을 통해 멀리 평창, 영월까지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아라리 류 역시 영서남부지역을 대표하는 자생적인 소리인 것으로 판단된다.

### 4) 영동북부지역

영동북부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논매기소리는 미나리 류이며, 일부 아라리 류, 사도 류 등이 있다(그림 8). 대부분의 논매기소리들의 분포 지역은 해안 충적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일부는 상류 하곡의 곡저평야에서도 나타난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미나리 류는 경상도 모정자소리가 복진하여 강원도로 가서 기존의 모심는소리가 있는 곳에 일부 정착하여 오늘날에 이른 소리이다(이소라 등, 2021).

미나리 류는 남북으로 발달한 태백산지에서 발원하여 동류하는 고성군과 속초시의 하천 주변에 발달한 평야 지대에서 나타나며, 주로 북천 주변에서 다수 나타난다.

출현지가 주로 해안평야지대인 점은 해안의 평탄지를 따라 이동하다 다시 하천 주변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는 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양양 남대천의 북부까지 연결되어 나타난다.

반면에 고성군의 서쪽은 해발 1,000m 이상의 태백산지로 막혀 있어 문화의 전파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는 논 경작이 쉽지 않아 논매기 소리 문화의 빈 공간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경기지방의 강원도 민요 영향권인 동부 경기도에 소리가 다시 전파되어 포천, 가평, 서울 등지에서도 일부 발견된다.

종합하여 보면, 영동북부지역은 다양한 논매기소리가 분포하지는 않지만, 그중에서도 미나리 류가 대표적인 논매기소리 문화지역으로 볼 수 있다. 미나리 류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해안을 따라 일부 남하하거나 인접한 서쪽의 인제와 미시령, 한계령 등의 주요 고개로 소리가 전달되었으며, 또한 멀리 경기 동부지역까지 영향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 5) 영동중부지역

영동중부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논매기소리는 오독떼기 류이며, 일부 잡가 류와 사리랑 류 등이 소규모로 분포한다(그림 9). 영동중부의 중심지인 강릉은 대관령을 통해 영동지방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해당하며, 오독떼기 류는 강릉 남대천과 연곡천 주변의 범람원 및 해안평야 지역을 따라 주로 분포한다.

오독떼기 류는 내부 자생 소리로, 강릉시 중앙부에 발

달한 도로망과 수계를 따라 소리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소리가 나타나는 대부분의 지역은 하천 인근 지역이거나 주요 교통로와 인접한다. 또한 오독떼기 류는 내부 전파 이외에도 인접한 평창, 정선 등의 주변 지역으로 소리가 전파되었다. 본래 해발고도가 높은 산악지형은 소리 전파에 방해를 일으키지만, 일부 고갯길을 통해 인적 교류 및 문화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강릉의 서쪽은 대관령을 통하여 평창군 진부 지역으로 소리 전파가 이루어졌으며, 남쪽은 삼당령을 통하여 정선군 임계 지역으로 소리 전파가 이루어졌다. 이후 서쪽으로는 오독떼기 류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리 전파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여 보면, 영동중부지역은 오독떼기 류가 소리 문화의 중심이다. 오독떼기 류는 강릉을 소리문화 중심지로 수계를 따라 소리 전파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지역 내 전파가 진행되었고, 일부 주요 고갯길을 통하여 인적 교류 및 문화 전파가 이루어졌다.

### 6) 영동남부지역

영동남부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논매기소리는 미나리 류, 입말 류와 아라리 류 등이다(그림 10). 영동남부지역은 지형 특성상 산악지대가 많고 하천 유역 면적이 넓지 않아 평야가 발달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발달하여, 밭농사를 할 때 불리는 미나리 류는 일부 산지 지역에서 나타난다.

또한, 입말 류는 영동남부지역의 동남부에 발달한 소규모의 평야를 통해 경북 울진으로부터 유입된 소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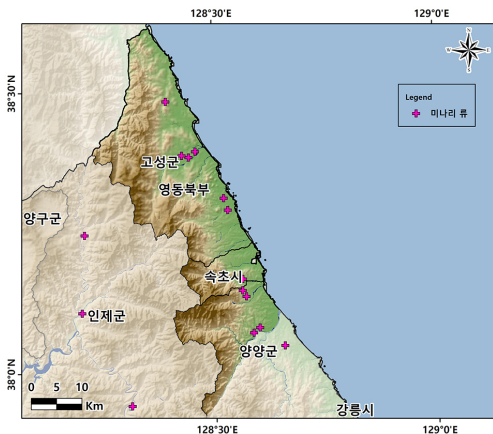


그림 8. 영동북부지역의 논매기소리 유형별 공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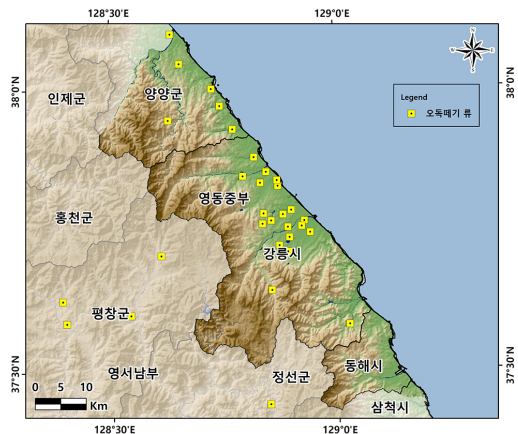


그림 9. 영동중부지역의 논매기소리 유형별 공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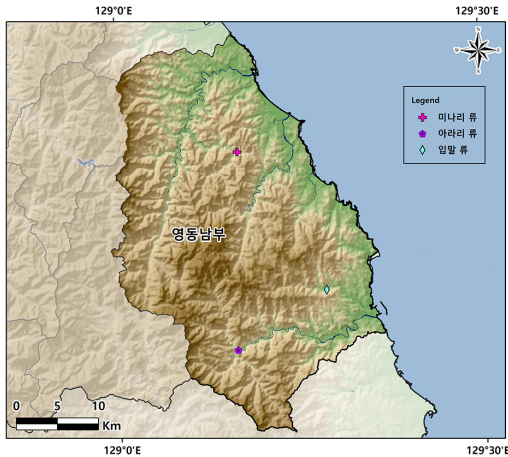


그림 10. 영동남부지역의 논매기소리 유형별 공간 분포

다(이소라 등, 2021). 즉, 영동남부지역은 강원도에 속해 있지만, 서북부의 산악지형으로 인하여 다른 강원 문화지역과의 교류가 어려워 동남부 충청평야를 통해 경북 문화지역과 교류가 잦은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여 보면, 영동남부지역은 과거 발농사를 중심으로 농업이 이루어져 논매기소리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 외부에서 유입된 소리이다. 특히 경북 북부 동해안지역과 교류가 잦아 논매기소리 역시 경북 북부지역에서 유입된 소리에 해당하여 영동남부지역은 경북 북부 동해안 문화권과 유사한 분포 특성이 나타난다(이소라 등, 2021).

#### IV. 결론

논매기소리는 인문적·자연적 환경이 반영되며, 과거 전통 농촌사회로부터의 고유한 문화가 논매기소리에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논매기소리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문화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농촌 사회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에 본 연구는 강원지역 논매기소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강원지역 문화지역 구분에 따라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강원지역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 분석에 사용된 논매기소리 유형은 방아소리 류, 상사 류, 오독떼기 류, 단허리 류, 미나리 류로 총 5개 유형이다. 각 유형들의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한 결과, 방아소리 류는 추가령구조곡 및 수계를 따라 강원서부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상사 류는 강원서부지역인 영서지방의 평야지역에서 널리 분포하며, 북한강과 남한강 등 수계를 통해 외부 경기도 및 충청북도 지역에서 유입된 소리이다. 오독떼기 류는 강릉시를 중심으로 강원 영동 해안평야 주로 분포하며, 대관령과 같은 고갯길을 통하여 소리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단허리 류는 원주시와 횡성군이 대표적인 문화 중심지이며, 남한강과 그 지류 하천인 섬강 등의 유로를 통해 인근 지역으로 소리 전파가 이루어졌다. 또한, 미나리 류는 강원 영동 북부의 고성, 속초가 문화 중심지로 인접한 양양 및 인제, 양구 등에서 나타났다. 특히, 강원 영서와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서도 유사한 소리 분포 특성이 나타난다.

강원지역의 논매기소리 문화지역 구분에 따른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영서북부지역은 주로 짧은 방아 류가 분포하며, 추가령구조곡과 한탄강 유로를 따라 경기도 북부 지역과 연결되어 유사한 소리문화 특성을 가지고 경기 북부 문화지역과 연결된다. 영서중부 지역은 상사 류, 방아소리 류가 주로 나타나며, 대부분 서남부의 평야 지역에서 분포한다. 이들 소리는 산지 소규모 곡저평야와 북한강과 그 지류인 하천들의 충적평야를 따라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영서남부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소리는 단허리 류, 방아소리 류와 아라리 류이며, 그중 단허리 류는 원주, 횡성이 문화 중심지인 자생적인 소리로 인접 지역으로 주요 고개 및 수계를 따라 소리가 전파되었다. 이밖에 영서남부지역의 자생적인 소리로 아라리 류가 태백산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영동북부지역은 다양한 논매기소리가 분포하지는 않지만, 그중에서도 미나리 류가 자생 소리로서 고성과 속초가 문화 중심지이다. 이 소리는 주로 하천 주변 및 해안과 인접한 평야지대에 분포하며, 남쪽으로는 양양 북부까지 전파되었다. 또한 서쪽으로 인제와 미시령, 한계령 등의 주요 고개로 소리가 전달되었고, 거리가 먼 경기 동부지역까지 소리 전파가 이루어졌다. 영동중부지역은 오독떼기 류가 자생 소리로서 문화의 중심지이다. 이 소리는 강릉을 소리문화 중심지로 수계를 따라 소리 전파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지역 내 전파가 진행되었고, 일부 주요 고갯길을 통하여 인근 지역으로 전파가 이루어졌다. 이밖에 영동남부지역에서는 대부분 외부에서 유입된 논매기소리가 나타나며, 특히 경북 북부 동해안지역에서 유입된 입말 류가 나타난다. 따라서 영동남부지역은 경북 북부 동해안 문화권과 유사한 분포

특성이 나타난다.

종합해 보면, 강원지역의 논매기소리 문화지역은 외부 문화지역의 영향을 받는 영서북부지역과 영동남부지역을 포함하여 영서중부지역, 영서남부지역, 영동북부지역, 영동중부지역 등 총 6개 문화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자생 소리를 가지는 소리문화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은 영서남부지역에서 원주, 횡성, 영동북부지역에서 고성, 영동중부지역에서는 강릉이다. 이 밖에 외부에서 유입되어 정착된 영서중부지역은 춘천, 홍천이 대표적인 문화 중심지이다. 이들 지역은 과거 벼농사가 시작된 이래로 노동요인 논매기소리 역시 일찍부터 시작되었고, 주변 지역에 전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논매기소리 유형 대부분은 기존 문화지역 경계와 비슷한 공간 분포 패턴이 나타났다. 하지만, 상사 류와 방아소리 류 등 외부 지역에서 유입된 소리들은 기존 문화지역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영서지방 전체에 분포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들은 소리 전파가 단순히 지역 행정 경계를 뛰어넘어 하천과 주요 고개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까지 전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지자체 단위의 행정 경계가 아닌 유역 수계 또는 산맥 등의 지형을 고려한 소리문화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강원지역에 나타나는 논매기소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방언 문화권 연구를 함께 진행한다면 소리문화 지역 경계 설정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강동학, 2011, “강원도 <논매는소리>의 기초적 분석과 지역적 판도” 한국민속학, 53, 7-36.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4, 「한국지자: 지방편 II」, 서울: 건설부 국립지리원.  
 국토지리정보원, 2006, 「한국지리지: 강원편」, 경기도: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2015, 「(한국지리지)강원도」, 서울: 진한엠앤비.  
 김장수·장동호, 2020, “경남지방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 특성 연구: 상사 류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9(2), 313-323.  
 김장수·장동호, 2021, “전남지방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

특성 및 문화지역: 아리시고나 류, 산아지소리, 절로소리, 세화지(세월이)소리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10(2), 219-236.

김창환·배선휘, 2006, “하천 유역권에 의한 권역구분과 권역별 규제지역 분석-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지리정보학회지, 9(1), 20-33.  
 박선애, 2018, “강원도 민요에 나타난 지역 문화 연구:영일 지역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6(2), 187-204.  
 박선애, 2021, “강원도 민요를 통해 본 지역 문화 연구” 인문사회, 21, 12(4), 3011-3024.  
 위눈술·장동호, 2016, “지형요소를 기반으로 한 전북지역 논매기소리의 공간 분포 특성 연구” 한국사지리학회지, 26(2), 83-98.  
 유명희, 2014, “홍천 지역의 지리적 조건과 민요권역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33, 407-436.  
 윤혜연·임은진·박현수, 2020, “경남지방 논매기소리의 공간적 분포와 문화권 구분에 관한 연구” 한국사지리학회지, 30(2), 186-200.  
 이기태, 2010, “도 경계지역 문화요소 분포와 문화권역 동체의 대상신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3(1), 519-558.  
 이소라, 1987, “농사와 농요의 관계” 한국민속학, 20(1), 157-162.  
 이소라, 2002, “민속음악과 예술: 노동요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23, 103-135.  
 이소라·임은진·장동호·변정민, 2021, 「경북지방 논매기소리 총서」, 충청남도: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민족음악연구소.  
 이소라·임은진·장동호·변정민, 2022a, 「강원도 논매기소리 총서」, 충청남도: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민족음악연구소.  
 이소라·임은진·장동호·변정민, 2022b, 「경기도 논매기소리 음원집」, 충청남도: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민족음악연구소.  
 장동호·이소라, 2015, “충청남도 논매기소리의 지리적 공간 분포 특성 분석” 한국사지리학회지, 25(3), 1-14.  
 장동호·임은진, 2022, “경북지역 논매기소리의 유형별 문화지역 구분에 따른 공간 분포 특성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11(2), 237-252.  
 전지영, 2003, “전라남도 민요의 분포와 특징 논매기소리와

정근비 · 임은진 · 장동호

모심기소리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12, 325-347.  
강원도청, <https://www.provin.gangwon.kr/>

교신 : 장동호, 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로 56, 공주  
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이메일: gisrs@  
kongju.ac.kr)

Correspondence: Dong-Ho Jang, 32588, 56 Gongju-  
daehak-ro, Gongju-si, Chungcheongnam-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gisrs@kongju.ac.kr)

투고접수일: 2023년 5월 31일

심사완료일: 2023년 6월 18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22일